

##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 방안 연구\*

홍석천\*\*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br>온라인 전시 방안 |
| 2. 전북지역 3·1운동의 기념               | 5. 맺음말                            |
| 3.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과<br>아카이브 전시 | 참고문헌                              |
|                                 | <Abstract>                        |

### 국문초록

1919년 3월, 전국적인 만세함성의 열기 속에서 전개된 전북지역 3·1운동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근대 민족운동으로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내에서 지속적인 기념(記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대상만을 표상하여 과도한 애국주의적 찬양과 미화가 이루어져 대중화되지 못한 기억의 재생만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을 전북지역 3·1운동 기념에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시 대상으로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일제의 식민 행정의 과정으로서 생산된 기록물인 도장관보고철과 수형기록카드 및 판결문을 선정하였다. 이는 전북지역 3·1운동의 전반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1차 사료로서 보존 기록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시의 구현방식은 전북도민을 비롯한 일

\* 본 논문은 필자의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 방안 연구』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E-mail: seokcheon92@gmail.com

반 대중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하이퍼텍스트로 구현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웹페이지 전시의 형태로 구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해 다양한 내러티브로 기획·구성하여 전시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록관리 분야의 개방형(Open source) 소프트웨어인 ‘OMEKA’를 활용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를 사전검토와 전시기획 단계, 전시 컬렉션의 구조화와 기록 등록관리, 전시 연출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현황과 함께 활용방안으로서 온라인 전시를 제안하였으나, 일제가 생산한 기록물에 한정하여 현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인식을 통해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기념을 비롯한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아카이브의 활용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북지역 3·1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문화가 기존의 방식과 관습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화되고, 일상화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주제어 : 전북지역 3·1운동,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 서비스, 온라인 전시

## 1. 머리말

100년 전, 1919년의 3·1운동(三一運動)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본격화된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만세시위가 일어났던 일제강점기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다. 특히 일제 식민주의의 경험을 딛고 수립된 국민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기원(起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1948년 제헌헌법의 공포와 함께 국경일 지정을 시작으로 연례적인 3·1절 기념 의례와 대통령 명의의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기억의 정치로써 규정하며 기념을 주도해왔다.

이로 인해 3·1운동에 대한 기념문화의 저변에는 ‘거족적(學族的)인 운동’이라는 오직 하나의 시선만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선은 3·1운동이 당위의 민족운동이었다는 전제 하에 당시 전국적인 시위의 주체로서 조선 민중의 역동성과 지역별 시위 양상의 다양성이 은폐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역대 정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인물과 공간, 그리고 관련 사건을 내세워 마땅히 계승해야 할 ‘민족정신’, ‘국민정신’으로서 3·1운동을 표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하게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1919년 정초부터 독립선언을 준비한 민족대표 33인과 이들의 무대였던 서울·경기지역, 그리고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한 유관순 등이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3·1운동, 특히 전북지역 3·1운동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지금까지 전북지역 3·1운동은 지역 내에서조차 3월 5일 옥구군 개정면(현재 군산시 구암동 일대) 만세시위와 4월 4일 익산군 익산면 이리시장(현재 익산시 남부시장 일대) 만세시위를 이끈 문용기 열사만이 각각 사건과 인물의 표상으로서 기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억의 정치에 의해 3·1운동이 민족정신과 국민정신의 표상으로서만 기념되어 온 실태를 전북지역 3·1운동을 통해 돌아보고, 전북지역 3·1운동 관련 기록물 활용의 유용성과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3·1운동사 연구에 있어 전북지역 3·1운동은 그 전개 양상과 특징적인 면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념의 대상으로서도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다만 전북지역 3·1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개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1)</sup> 본 연구는 전북지역 3·1운동 기념을 위해 관련 기록물 활용의 유용성과 가치를 온라인 전시 방안으로써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검토한 선행연구로서 기록물과 기념에 관한 연구와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서의 전시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록물과 관련하여서는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주목하여 독립운동사 관련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 및 기록정보로서의 특징을 정의한 연구가 있다.<sup>2)</sup> 그러나 시론적인 연구에 그친 결과 독립운동기록물을 보다 기록학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 기념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정의에서부터 시작해 현대 한국에서 사회화되어 하나의 문화로서 전개되어온 기념문화에 대한 고찰 및 비판이 이루어졌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 3: 삼일운동사(하)』,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용위원회; 김남수, 1988, 『전북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북지역독립운동추진위원회, 2004, 『전북지역독립운동사』, 탐진; 김진호·박이준·박철규 저·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09, 『국내 3·1운동Ⅱ-남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2010, 『국내 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 7 : 전라북도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 황선도, 2014, 『독립운동관련기록의 통합서비스를 위한 조직화 방안 연구 - 홍사단을 사례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3) 특히, 역사학계에서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기별 인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기념에 주목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독립운동과 관련한 공간에 대한 인식을 기억하는 방식과 기념의 방법론, 그리고 기념의 역사적 산물로서 기념관의 건립에 대해 고찰한 연구가 있다.4)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서의 전시에 관한 연구는 전시의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5)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6)가 다방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록관의 전시 서비스와 기록물의 전시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점과 온라인 전시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온라인 전시를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다채롭게 구현하고자 한 사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오늘날 아카이브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웹 2.0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아카이브 이용자들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요구와 활용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아카이브는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 서비스의 활성화와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독점해왔던 아카이브에서 이제는 기록정보를 개방과 공유의 장으로 끌고나와 이용자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새로운 아카이브로의 전환과 함께 기록정보의 보존관리자에서 중계자로서의 아키비스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7)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방면의 기록정보서비스 중에서 전시는 아카이브를 일반 대중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기능을 수행한다. 전시는 기본적으로 정보전달과 교육을 기능하며,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용자가 아카이브

3) 정근식, 2006,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97, 역사교육연구회, 277-305.  
 4) 박경목, 2018, 『독립운동 공간의 기억과 기념』, 『한국근현대사연구』 87, 한국근현대사학회, 71-105; 황선익, 2018, 『독립운동 기념의 역사적 전개와 독립운동 기념관』, 『한국근현대사연구』 87, 한국근현대사학회, 107-138.  
 5) 박정현, 2007, 『기록물관리기관의 아웃리치 서비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원, 2007, 『기록관 전시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주, 2009,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전시 비교와 개선방안 : 건국 60년 기념 전시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한국기록관리학회, 103-131; 이선희, 2009, 『기록의 전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최석현, 2013,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시의 필요성 고찰 - 아카이브 전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2014,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2, 한국기록학회, 135-183; 서은경·박희진, 2019, 『기록콘텐츠 기반의 아카이브 전시 활성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한국기록관리학회, 69-93.  
 7) 김유승, 2010,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한국기록관리학회, 32쪽.

의 이용을 신청하기에 앞서 이용자에게 먼저 주요한 기록을 소개함으로써 이용자의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준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전시가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의 개인과 단체에도 온라인 전시는 과거와 달리 어렵지 않은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전시는 전자적으로 생산된 전자기록뿐만 아니라, 문서·사진·박물 등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이후 디지털화한 기록물을 콘텐츠(Content)로 활용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며, 무엇보다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고, 이용자들에게 흥미를 유도하여 기록정보를 활용한 이차적 저작물의 생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sup>8)</sup>

따라서 본 연구는 3·1운동 100주년을 기하여 전북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그 속에서 나타난 특징을 조명하고, 전북지역 3·1운동 기념을 위해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을 온라인 전시의 유형 중 하나인 웹페이지 전시로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매년 3월 1일을 주기로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3·1운동 기념문화의 획일성과 민족 담론의 틀에 갇힌 폐쇄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적(公的)인 의례 중심의 기념을 지양하고, 독립운동사에 대한 기념의 다양화와 일상화를 지향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전북지역 3·1운동의 기념

### 1) 전북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특징

전북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2월 28일~3월 2일 군산 일대의 독립선언서 배포를 시작으로 3월 3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됨으로써 발기되었다. 전북지역 3·1운동의 주요 사건은 3월 초~4월 중순에 집중되었으며, 최근 구축된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총 79건의 사건

8)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2014,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2, 한국기록학회, 138쪽.

중에서 만세시위(이하 시위) 44건, 계획 12건, 그리고 기타활동(독립선언서 배포 등) 23건이 있었다.

표 1. 전북지역 3·1운동의 사건개황<sup>9)</sup>

일자 (1919년)	지역 및 사건	기본 유형	시간	행동 양상	운동 매체	운동 주체	
2.28~3.2	<b>군산 일대 독립선언서 배포</b>	기타활동	-	-	문서	천도교도, 기독교도	
3.1~3	익산군·전주군 독립선언서 배포		새벽			-	천도교도
3.2	임실군 독립선언서 배포						
	남원군 독립선언서 배포						
3.2~3	장수군 독립선언서 배포		-				
3.3	순창군 독립선언서 배포		-				
3.5	<b>군산부·옥구군 개정면 만세시위</b>	시위	오후	만세, 집단항의	구호, 깃발, 문서	기독교도, 학생	
3.6	김제군 김제면 시위 권유	계획	-	만세	문서	일반	
3.9	익산군 여산면 시위	시위	야간		구호, 깃발	-	
3월 초·중순 군산부 내 만세시위 계획		기타활동	-	-	문서		-
3.10	익산군 여산면 시위	시위	야간	만세	-	학생	
	임실군 둔남면 오수공립보통학교 교내 시위		오전		구호		
3.13	<b>전주군 전주면 남문 밖 시장 시위</b>		오후 ~야간		깃발	천도교도, 일반	
3.14	전주군 전주면 시위		오후		구호	일반	
3.16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옥전리 구고리 시위		야간		일반		
	정읍군 태인면 시위		오후			깃발, 문서	학생, 일반
3월 5월(3.17, 4.25, 5.11) 순창군 순창면 격문 배포		기타활동	-	-	문서	-	
3.17	익산군 응포면 시위 조집	계획	-				
	김제군 금구면 시위 조집						
	전주군 초포면 시위						
3.18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구곡리 석두리 시위	시위	야간	-	구호	-	
	익산군 금마면 익산시장 시위		오후	만세		일반	
	임실군 둔남면 시위					일반	

9)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https://c11.kr/bmot>. (검색일 2020.11.01.)

일자 (1919년)	지역 및 사건	기본 유형	시간	행동 양상	운동 매체	운동 주체
3.19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시장 시위			만세, 집단항의, 파손·파괴	구호, 깃발	
	고창군 고창면 장날 만세시위 계획	계획	-	-	문서	-
	임실군 청응면 구고리 시위	시위	야간	만세	구호	일반
3.19~20	전주군 봉동면 선언서 배포	기타활동	-	-	문서	-
3.20	김제군 수류면 원평 시장 시위	시위	오후	만세	깃발, 구호	일반
	임실군 지사면 시위		야간		구호	
	장수군 산서면 시위 조직	계획	-			
	임실군 둔남면 응원대 파견					
3.21	임실군 임실경찰서 항의 방문	기타활동	오후	집단항의	-	-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시위	시위	야간	만세	구호	일반
	고창군 무장면 만세시위		-		깃발, 구호	-
	김제군 수류면 원평 시장 시위					
3.22	정읍군 정읍면 시위 준비	계획		-	깃발	-
	장수군 반암면 노단리 시장 시위					일반
3.23	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시위	시위	오후	만세	구호	일반, 학생
	임실군 강진면 시위				구호, 문서	일반
	금산군 금산 읍내 장날 시위					
	군산부 군산공립보통학교 방화 사건	기타활동	-	방화	-	학생
	김제군 김제 읍내 시위 조직	계획	-			
	남원군 남원면 시위 계획					
	익산군 금마면 익산시장 시위	시위	오전	만세	구호	-
<b>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시장 시위</b>	오후~ 야간, 심야		파손·파괴, 집단항의, 만세	일반		
3월 중순	정읍의 독립 시위 축구 활동	기타활동		-	문서	-
3.25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1차 시위		-		구호, 깃발	일반
3.26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2차 시위	시위		만세	구호	
3.28	익산군 금마면 익산시장 시위		오후		-	
	고창군 흥덕면 시위 조직					
3.28~30	군산부 군대 응원대 파견	계획				
3.29	옥구군 임피면 시위 계획		-	-	깃발	-
3.31	금산군 복수면 만세시위	시위	오후 ~야간	만세	구호, 깃발	일반
	군산부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 법정 만세시위	기타활동	-		구호	-

일자 (1919년)	지역 및 사건	기본 유형	시간	행동 양상	운동 매체	운동 주체
4.1	무주군 적상면 무주 읍내 장날 시위	시위	오후		깃발	일반, 기독교도, 학생
4.2	정읍군 정읍면 장날 시위		-		-	-
4.3	진안군 주천면 시위		오후 ~야간	만세	구호, 문서	일반, 학생
	남원군 덕과면 사매면 시위		오후	만세. 집단항의	문서, 구호	일반
	전주군 전주면 시위	기타활동	-			
4.4	김제군 만경면 만경시장 시위	시위	오후	만세	구호	일반, 학생
	집단항의, 만세			깃발, 구호	일반	
	익산군 익산면 이리시장 시위			깃발, 구호, 문서	일반, 기독교도	
4.5~6	5일 익산 황화면 시위와 6일 여산면 시장 정지		-	만세	구호	기독교도, 천도교도
4.5	임실군 임실면 불온 문서 발송 사건	기타활동	-			
	남원군 동면 시위 계획		-			
4.6	진안군 마령면 문서·선언서 배포		-	-	문서	
	임실군 신덕면 시위					
4.7	4월 7일 임실군 성수면 시위	시위	야간	만세	구호	-
4.8	4월 8일 익산군 용안면 화매리 산상시위					
	4월 상순경 전주군 전주면 독립 문서 배포	기타활동	-	-	문서	
4.11	4월 11일 순창군 순창면 격문 발견		오전	-		
4.12~13	4월 12일~13일 진안군 성수면 도동리 시위	시위	-	만세	구호	일반
4.14	정읍군 용북면 철교 교각 화재	기타활동	야간	방화	-	-
4.18	4월 18일 부안군 건선면 줄포 시장 시위	시위	오전		깃발	학생
5.14	고창군 부안면 난산시장 격문	기타활동	-	-	문서	-
5.26	고창군 오산면 태극기 발견				깃발	

이와 같이 전북지역 3·1운동 총 79건 중 3월 한 달 동안 56건이 집중되었으며, 시위가 도내에 확산되는 와중에도 시위를 촉구하는 격문 배포나 권유 그리고 경찰서 항의방문과 방화 등의 기타활동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3월 5일 군산부와 옥구군 개정면 시위는 도내에서 있었던 최초의 시위였다. 이



시위는 구암교회 부속 영명학교 교사들과 같은 교회 부속 여학교 교사 및 병원 사무원 등의 기독교도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본래 3월 6일 군산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으나, 3월 5일 계획이 발각되어 이두열·김수영·박연세 등 관련 교사 5명이 군산경찰서에 구속되자, 이에 같은 날 오전 8시경 양기준·유한중 등 100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고창(高唱)하면서 구암리에서 군산부로 이동하여 군산경찰서 앞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를 기점으로 전북지역의 시위는 익산과 전주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읍내와 시장 또는 학교와 면사무소 및 헌병분견소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3월 13일 전주군 전주면 시위는 장날을 이용하여 천도교도와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등의 기독교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오 직후부터 시작해 자정 무렵까지 12시간 동안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시위였다. 즉, 정오에 약 150명의 군중으로 이루어진 시위대가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만세를 고창하며 시가행진을 시작하였고 군경에 의해 해산되었다가 오후 3시와 밤 9시경에 재개하여 진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일제는 이 시위와 관련하여 70여 명을 구인하였는데, 이는 3월 13일 전주면 시위의 참가자 수가 상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3월 23일 임실군 둔남면 시위에서는 오수리 시장에 약 2,000여 명이 모여 3~4일 전 구금되었던 시위 주모자 1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관주재소를 파괴하고, 인접한 면사무소 및 일본인 여관까지 파괴하는 등의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이튿날인 24일 아침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해산될 정도로 시위대의 규모는 도내의 여타 지역과는 크게 달랐다. 즉, 이러한 시위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임실군민의 주도로 일어난 시위가 8건이나 될 정도로 군내에서 단기간에 시위가 집중되어 그에 따른 시위역량의 급속한 진전에 기인한다.

이외에도 4월 초까지 도내에서는 면사무소나 헌병분견소 근처에 집결하여 항의하거나, 또는 장꾼들과 일반 군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날을 이용한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4월에는 3월에 비해 절반 이하인 23건으로 감소하며 3월의 뜨거웠던 만세합성의 열기가 식어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종전의 단순 시위 해산을 넘어 발포(發砲)로 진압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4월 4일에 일어난 남원과 익산에서의 장날 시위였다.

남원군 남원 읍내 시장 시위는 1,000여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일어난 시위로서 전날인 3일 덕과면·사매면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즉, 덕과면·사매면 시위를 주도하여 남원헌병분대에 유치된 이석기를 빼내기

위해 이석기의 일족인 이형기·이성기·이용기 등의 이씨 가문일족이 4일이 장날임을 기회로 읍내에 몰래 들어와 오후 2시경에 동지들을 규합하여 시위를 벌인 것이었다. 이들은 만세를 고창하며 시장을 돌아다녔고, 이에 경계중인 헌병이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더욱더 맹렬한 시위를 지속하였다. 급기야 시위대가 남원헌병분견소까지 진입하려 하자 헌병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주모자 6명이 체포되었다.

익산군 익산면 이리시장 시위는 기독교도가 중심이 되어 300여 명의 군중 모인 가운데 일어난 시위로서 당시 일본인 지주의 착취에 시달린 익산군민의 거센 항일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익산군 오산면 남전리에 소재한 남전교회의 교인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 인사는 문용기와 김치옥 등 4명이었다. 이들은 사전에 계획한대로 오후 12시 30분경에 독립선언서 배포와 만세를 고창함으로써 시위를 시작하였으며, 장날의 특성상 시장에 모인 이들 모두의 호응에 힘입어 대규모 시위행진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헌병의 해산 명령과 수비병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세를 높여 시위를 지속해나가고자 하였으며, 헌병은 이를 무력으로써 해산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게 되는 사태로 이어졌으며, 사망자 5명을 비롯하여 부상자 10명이 발생하고, 12명이 체포되었다.

이처럼 전북지역 3·1운동은 시위건수와 사상자 및 참여인원 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운동주체의 성격 면에서 볼 때 전북지역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의 역할이 가장 컸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일반 군민의 역할 또한 결코 작지 않았다. 전북지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불꽃이 처음 타오른 지역이었던 만큼 천도교는 3·1운동 직전까지 전주·익산·정읍·임실·금산 등지에 지방 종리원(宗理院, 천도교의 행정·사무 기관)이 잘 갖춰져 있었고, 이러한 조직체계는 당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락책임을 맡은 교인들로 하여금 독립선언서 산포와 만세시위의 소식 전파를 일사불란하면서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천도교의 역할은 동학농민혁명에 이어 3·1운동에 이르기까지 근대 전북지역의 민족운동을 이끈 주역으로서 당시의 시대적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한 것이었다. 또한 기독교인들도 천도교와 함께 전북지역 3·1운동의 또 다른 주체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전주 신흥학교·기전여학교, 군산 영명학교 등의 학교를 통해 도내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와 함

계 일반학교 학생들의 조직적 참여와 군중의 자발적 참여는 전북지역 3·1운동의 가늠자 역할을 하였다.<sup>10)</sup>

둘째, 운동양상 면에서 볼 때 전북지역 3·1운동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날을 이용한 시위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산상시위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방문 또는 시위를 촉구하는 격문의 배포와 권유 및 단순 계획으로 무산된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 일제 당국은 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해서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적지만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4월 4일 익산군 이리시장 시위를 주도한 문용기의 경우 일제의 진압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거하다 순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북지역 3·1운동 또한 여타 지방 못지않은 각계각층이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서의 특징을 보이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 2) 전북지역 3·1운동의 기념

기념(commemoration)은 과거에 대한 집합적(집단)기억의 재현으로, 기억을 현재의 시공간에 불러내어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기념을 뜻하는 한자를 살펴보면 紀念·記念으로 통칭되는데, 이는 곧 기념이 시간성·기록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1)</sup> 그렇기 때문에 기념은 대상과 주체, 내용과 형식에 따라 기념일, 기념물과 기념 공간, 기념의례 등의 다양한 방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현재적인 관점에서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 중 기념일은 기념주체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시간적 장치에 해당되며, 공간적 장치인 기념물과 기념공간이 이에 대응한다. 따라서 기념한다는 것은 기념일과 기념물 및 기념공간을 매개함으로써 이를 통해 기념공동체는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과거의 기억을 세대적으로 전승한다.<sup>12)</sup>

특히, 기념은 시각적인 매체가 공간적 장치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공간적 장치는 동상·비석·탑 등의 기념물과 공원·가로·기념관 등으로

10) 김진호·박이준·박철규 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09, 『국내 3·1운동Ⅱ - 남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41쪽.

11) 정근식, 2006,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97, 역사교육연구회, 280쪽.

12) Zerubavel, E, 2003, 『Time Maps-Collective Memory and the Social Shape of the Pas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정근식, 2006, 앞의 논문, 281쪽에서 재인용).

구성되는 기념공간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영속적이다. 즉,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고 그것을 시공간적으로 재현하여 상징화하는 작업 역시 그 자체로 새로운 집단적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의 경험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나 당대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에 맞게 변형되면서 실현된다. 또한 시기에 따라 드러난 정도와 내용의 성격이 다르다. 기념물은 형상(形像)으로 고정된 담론인데, 조성주체의 자기정체성의 표현뿐만 아니라 절제와 제한까지도 담고 있다.<sup>13)</sup>

또한 기념물은 특정한 정치·사회적 배경 아래 건립주체의 집단적 정체성이 표현된 결과로서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시공간에 고정하여 영속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배경과 정체성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다. 더욱이 변화된 시간과 정치·사회적 배경의 영향으로 기억의 재생산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하면 이의 존재는 논쟁의 대상이 되며, 이런 움직임이 더 진전되면 해체되거나 재배치된다. 즉, 기념물과 기념공간의 조성이 과거를 현재에 놓는 것이라면, 반대로 이의 해체는 곧 과거를 과거에 놓는 것이다. 따라서 기념물을 비롯한 기념공간의 조성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과 기능 및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재현된 과거를 전승하고 교육하는 과정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가 작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이와 같이 특정한 시공간과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다양하게 구현되는 기념은 그 주체와 방식에 따라 기능과 내용의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독립운동 기념은 민간의 기념사업회나 지역적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등이 주체가 되어 기념대상과 기념 의례, 기념물과 기념공간 등 독립운동 기억의 형성과 계승·전유 과정을 각인하는 모든 매체의 특징과 작용에 제각기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독립운동 기념을 좌우하는 것은 정부 보훈정책의 기초와 그에 따른 실천이며,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 기념의 방식 가운데 현충시설 지정은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와 관련된 현장과 기념물 또는 시설을 제도권의 관리영역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 기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국가유공자의 희생이나 공헌의 역사적 사건, 인물과 관련된 기념물 또는 장소로서 ‘현충(顯忠)’이라는 개념이 독립운동의 기념만을

13) 정근식, 2006. 위의 논문, 281쪽.

14) 정근식, 2006. 위의 논문, 282쪽.

상징하는 것은 아니며 독립운동 공간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충(忠)’에 국한된 개념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로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도 불식할 수 없다.<sup>15)</sup>

이러한 기념의 메커니즘(mechanism)과 독립운동 기념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현충시설 지정은 전북지역 3·1운동의 기념에도 예외 없이 작용하였다. 즉, 선택과 배제가 따르는 기억의 정치와 애국주의의 과잉이 상호작용한 결과 현존하는 기념물과 기념공간이 전북지역 3·1운동의 면면을 포괄하지 못한 채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지나친 미화 등으로 관성적인 재생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배제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무관심 속에 도민의 인식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존하는 전북지역 3·1운동 관련 기념물 및 기념공간의 현황과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2.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한 기념물 및 기념공간의 현황<sup>16)</sup>

건립 시기	지역	명칭	유형	기념대상	건립주체
1949	익산	순국열사의 비	비석	4월 4일 이리시장 시위	이리시민 ※ 비문: 이승만
1971		익산 3·1운동 기념비			동아일보·익산3·1운동기념비건립협찬회
1974	남원	남원 3·1운동 기념비		4월 3일 덕과면 시위 및 4월 4일 남원 읍내 장날 시위	동아일보·남원청년회의소
1977	임실	임실 3·1운동 기념비		3월 중순~4월 초순 사이에 있었던 임실지역 시위 전 반	동아일보·임실3·1운동기념비건립위원회
1983		기미 3·1운동 기념비		3월 2일 임실지역 독립선언서 배포	운암3대운동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
1984	정읍	태인 3·1운동 기념탑	탑	3월 16일 태인면 시위	태인3·1운동기념탑건립추진회
1986	군산	군옥 삼일운동 기념비·만세상	비석·동상	군산지역 3·1운동 전반	군산3·1운동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
1989	김제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비	비석	3월 20~21일 원평시장 시위	금산면민
1991	임실	오수 3·1독립운동 기념탑	탑	3월 10일 오수보통학교 시위 및 23일 오수리 시장 시위	오수3·1독립운동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15) 박경목, 2018, 『독립운동 공간의 기억과 기념』, 『한국근현대사연구』 87, 한국근현대사학회, 90~92쪽.

16)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 <https://c11.kr/bo6r> (검색일 2020.11.01.)

건립 시기	지역	명칭	유형	기념대상	건립주체
1995	장수	장수 3·1운동 기념비	비석	3월 19·23일의 산서면 시위	산서면3·1운동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
	진안	전영상선생 기적비		4월 6일 마령면 독립선언서 배포를 주도한 전영상	의사보익전공영상항일독립기적비수립 추진위원회
1999	남원	남원 3·1만세운동 발상지 기념탑	탑	4월 3일 덕과면·사매면 시위	남원3·1만세운동발상지성역화추진위원회
2000	군산	군산 3·1독립운동기념비	비석	3월 5일 옥구군 개정면 시위	군산3·1운동기념사업회
	전주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3월 13일 전주 남문 밖 시장 시위	전북인권선교협의회·전주3·1운동기념사업회
		전주 3·1운동 기념비		3월 13~14일 전주 일대 시위	전주신흥학교100주년 기념사업회
2001	무주	전일봉선생 상	동상	4월 1일 적상면 무주 읍내 장날 시위 주도자 전일봉	전일봉선생동상건립추진위원회
2003	익산	여산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비석	3월 9~10일 여산면 시위	성균관 유도회 여산지부
2008	군산	군산 3·1운동 기념관 (3·1운동 역사영상관)	기념관	3월 5일 옥구군 개정면 시위	군산시
2009	남원	계명당고개 대한독립만세 탑	탑	4월 3일 덕과면·사매면 시위	사매면발전협의회
2010	익산	순국열사 충혼비	비석	4월 4일 이리시장 만세시위를 주도한 오산 출신 순국열사 문용기·박영문·장경춘	오산면민
2014	김제	만경3·1독립운동기념탑	탑	4월 4일 만경면 만경시장 시위	김제시·만경3·1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
2015	익산	문용기 열사 동상	동상	4월 4일 이리시장 시위 주도자 문용기	익산시·문용기열사동상건립추진위원회
2018	군산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기념관	군산지역 3·1운동 전반	군산시
미상	장수	애국지사 박정주선생 추모비	비석	3월 19일 산서면 동화리 시장 시위 주역 박정주	미상
	고창	김승옥 기적비		3월 19일 고창면 장날 만세시위 계획을 주도한 김승옥	

이처럼 전북지역 3·1운동의 기념은 도내 시·군에서 대표적인 사건과 이를 주도한 인물을 기념물의 유형 중 비석으로 표상한 것이 대다수이며, 기념함으로써 표상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과도한 애국주의적 찬양과 미화가 농후하다. 특히, 역사적 장소<sup>17)</sup>의 현장성을 우선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념물을 건립하거나 또는 전혀 무관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등의 실태는<sup>18)</sup> 독립운동 기념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념공동체만의 공간에서 사회에 일반화되지 못한 채 대중에게서 잊혀 가는 기억의 재생만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한계가 있다.



인류평등의 대의에 의한 전 민족적 항쟁의 첫 걸음이요, 조국의 독립을 사해에 선포하여 민족분열의 정의를 내세운 기미 3.1운동은 우리 청사(靑史)에 빛나고 있다. 단기 4252년 3월 1일 선열 손병희 선생 등 33인이 우리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한국의 독립국임과 우리겨레의 자유민임을 세계만방에 외치자, 경술실국 이래 자유를 빼앗기고 국가를 잃은 백성의 비애와 울분은 화산같이 터져 독립만세의 소리 지축을 흔들며 태극기의 물결 하늘을 가리울 때, 우리 이리에서 문용기 선생께서 이에 호응하여 동년 4월 4일 이리시장에서 성거(聖擧)를 지휘하시던 중 포악한 왜적의 총검에 무찔리어 이 땅에서 장렬한 순국의 길을 떠나셨으나, 아아! 거룩하다! 품으신 이 뜻 3천만 민족의 빛이 될지며, 장하다! 밝으신 이 길 우리겨레의 거울이 되오리다. 위대한 선열의 흘리신 의혈(義血)의 값은 37년 후 오늘에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자유의 독립을 다시 찾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성지에 이 비를 세워 자손만대의 추모의 표가 되도록 하노라.

1948. 3. 1.

대통령 이승만

그림 1. 익산 순국열사의 비와 비문(碑文)

즉, 역사적 기억을 꼭 그 자리, 그 장소, 그 공간에 펼쳐놓아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기억하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의 제기를 제어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에 독립운동사에 대한 기념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 17) 피에르 노라(Pierre Nora)에 따르면 역사적 장소는 ‘기억의 터(lieux de mémoire)’라고 일컫는 것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의 터’는 단순한 기념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억 부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공간 이미지이며, 환기력을 지니는 특정 사물이나 장소,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 행위와 기호 또는 기억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기능적 기제들을 총 망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역사적 장소가 기억의 터라면 역사적 장소에 대한 기념은 과거 기억을 매개로 역사적 장소를 내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전진성, 『기억과 역사: 새로운 역사·문화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사학사학보』 8, 2003, 101-140;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2003, 159-189 참조.
- 18) 대표적인 예로 남원 3·1만세운동 발상지 기념탑은 4월 3일 덕과면·사매면 시위에 대한 기념물로서 1999년에 건립된 것으로 현장성을 우선하였지만, 남원시청으로부터 12km나 떨어져 있으며, 반대로 장수 3·1운동 기념비는 3월 19·23일에 있었던 산서면 시위를 기념하고자 1995년에 건립하였는데, 현장과는 무관한 장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수군청에서 19km나 떨어져 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국내 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 7 : 전라북도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참조.

접근성이 유리한 인위적 공간을 형성하여 기억을 재생하고,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억과 기념의 장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sup>19)</sup>

여기서 인위적 공간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지칭하지만, 최호근의 주장에 따르면 기념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동심원을 그리면서 수용자 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기념이 장소의 구속과 국경 및 인종적 한계도 초월할 수 있는 미래 기념의 대안(對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20)</sup> 이에 이러한 주장을 고려한다면 온라인은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오프라인보다는 접근성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념에 관련 기록물을 활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전시를 하는 것은 접근성은 물론 지속가능성과 기록물의 가치를 증진하고, 이전보다 개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기념의 문화로 나아가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과 아카이브 전시

#### 1)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정의와 현황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정의를 위해서는 기록·기록물에 대한 개념과 독립운동기록으로서 의미를 검토해야한다. 이에 기록·기록물의 개념에 대한 관계부터 먼저 살펴보면, 기록(記錄)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로서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진다. 그렇지만 모든 기록이 문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듯 모든 문서 역시 기록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즉, 기록된 모든 것이 넓은 의미의 문서로 불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 주체의 자연스러운 행정 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수집된 문서들과 도서관의 도서, 박물관의 박물은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sup>21)</sup>

그러나 현행 공공기록물법에 규정된 기록물의 정의에 의하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sup>22)</sup>이라 하여 도서

19) 박경목, 앞의 논문, 97~98쪽.

20) 최호근, 2019, 『기념의 미래』,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412~424쪽.

21) 김정하, 2007, 『기록물관리학 개론』, 아카넷, 24~25쪽.



와 박물관 또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가 정보학과 역사학의 토양에서 배양되었다는 사실과 행정 활동의 투명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정의는 역사학과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로 다룬다. 즉, 역사적인 의미에서 인식하는 기록물은 기록된 모든 것을 지칭하며, 과거에 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록과 결코 다르지 않는 역사학의 ‘사료(史料)’<sup>22)</sup>에 해당된다. 더욱이 역사학과 관계될 때에 기록물의 역할은 과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문서들의 유기적인 관계인 맥락(context)을 통해서는 다양한 접근경로(주제)를 보장하여 이를 통한 과거의 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sup>24)</sup>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전북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에 대하여 당시 한반도에 대한 식민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산하조직(지방 행정 및 사법 행정 포함)이 생산한 기록을 지칭하며,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 정부의 보훈행정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까지도 포함된다. 더욱이 3·1운동이 일제강점기 사상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은 ‘독립운동’<sup>25)</sup>이라는 활동의 과정에서 산출된 주제기록으로서의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에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독립운동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독립운동기록은 시간과 공간·활동·생산자의 3요소로 구성된다. 즉, 19세기 말 의병항쟁에서부터 시작하여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전까지의 시간과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세계의 공간에서 일제의 식민 행정에 대해 직간접적인 행동으로써 항거하여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한 활동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박물관이 곧 독립운동기록이라 할

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1호)』제3조(정의) 2항.

2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제2조(정의) :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4) 김정하, 2009,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1, 한국기록학회, 38쪽.

25) 한국독립운동에 대하여 역사학계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한말 의병전쟁에서부터 국권을 침탈당한 1910년을 기점 또는 전후로 하여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로 상정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로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아시아와 연해주·미주·유럽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조동걸, 2007,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91~294쪽 참조.

수 있다.<sup>26)</sup>

따라서 전북지역에서 있었던 3·1운동으로 인해 생산된 기록물,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은 1919년 전북도민이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벌인 3·1운동 당시에 조선총독부가 진상 파악과 대응을 위해 생산하여 현재까지 보존되어 전하는 기록물(Archives)과 해방 이후 수립된 우리 정부의 보훈행정의 과정에서 생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Records)을 포괄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전시의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록물은 보존 기록 가치(archival value)를 지닌 행정기록물인 도장관보고철과 수형 기록카드 및 판결문에 한정한다. 이는 전북지역 3·1운동의 시위공간과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인물에 대해 알 수 있는 1차 사료로서 전북지역 3·1운동의 전반적인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수형기록카드는 전북지역 3·1운동에 참여한 개인의 실제 수형 당시 촬영했던 사진이 첨부된 기록물로서 전시가 시각화된 이미지로 연출되는 것을 고려할 때 여타 기록물보다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1) 도장관보고철

먼저, 도장관보고철은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 보고(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가 정식 명칭이며, 1919년 3·1운동 당시 각 도장관(현재의 도지사)이 해당 지역의 시위 상황에 대하여 조선총독에 직보(直報)하거나, 정무총감 및 내무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문건을 말한다. 내용의 구성은 其1에서 其7까지 총 7권으로 편철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其1과 其3은 남아있지 않으며, 其2와 其4~7 총 5권만 남아 있다. 문서를 접수하여 편철한 부서는 조선총독부 내 무국이며 편철 시기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동년 11월까지이다. 3·1운동 당시 각 도의 시위 상황에 대한 1차 보고로서의 전보나 주간 또는 월간보고, 시위 진정 후 민정을 파악한 보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27)</sup>

도장관보고철에서 찾을 수 있는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한 기록건은 전라북도장관이 1919년 3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라북도장관이 생산하여 총독부에 발신한 35건이 확인된다. 또한 도장관보고철은 각 도의 장관이 도내에서 일어난 사건의 정황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격문(檄文)이

26) 황선도, 2014, 『독립운동관련기록의 통합서비스를 위한 조직화 방안 연구 - 홍사단을 사례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23쪽 참조.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소개 <https://c11.kr/bvv3> (검색일 2020.11.01.)

첨부되어 현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전북지역에서도 격문이 4건이 첨부되어 전하는데,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확산된 3·1운동의 열기와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전북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3. 도장관보고철의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한 기록건 현황<sup>28)</sup>

순번	발신일자	수신일자	기록건명	관련 지역 및 사건	
				유형	내용
1	1919.3.3.		[電報]	운동	3월 초 군산·익산·전주 선언서 배포
2	-	1919.3.4.	電報		3월 4일 김제군 선언서 배포
3			[電報]		3월 5일 군산·옥구시위
4	1919.3.5.	-	[電報]		3월 초 전주·익산·임실 선언서 배포
5	1919.3.13.	-	[電報]		3월 13일 전주시위
6	1919.3.15.	1919.3.17.	騷擾ニ關スル件		3월 10일~14일 시위 4건
7	1919.3.16.		[電報]	탄압	3월 16일 전주군내
8	1919.3.18.		[電報]	운동	3월 16일 정읍시위
9	1919.3.24.		[電報]		3월 23일 임실·금산시위
10	1919.3.25.	1919.3.27.	騷擾ニ關スル件		3월 16일~23일 시위 10건
				탄압	3월 20일 도내
				동향	태인우편소에서 격문 압수
11	1919.3.28.	-	[電報]		3월 28일 군산부 화제
12			地方騷擾ニ關スル件	운동	3월 23일~4월 3일 시위 5건
13	1919.4.4.	1919.4.7.	[電報：裡里，南原의 萬歲示威]		4월 4일 익산·남원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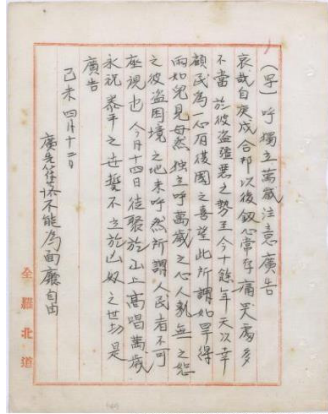
28) 전북지역 3·1운동과 관련하여 도장관보고철에 현전하고 있는 격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전북지역 3·1운동 격문의 현황			
제목	작성자	발견 장소	출처
순중에게 보낸 상서문 (頓首再拜上書)	이희섭	정읍군 태인우편소	騷擾ニ關スル件 (1919.3.25.)
임실군 문명군이 군수 등의 사퇴를 종용한 편지 (拜啓今番獨立之事에關하야...)	문명근	임실군 임실우편소	不穩文書配付者檢舉 ニ關スル件 (1919.5.9.)
독립만세를 부르짖을 것을 널리 알림(呼獨立萬歲注意廣告)	미상	순창군 유등면 게시판	不穩貼紙發見ノ件 (1919.5.19.)
널리 알림(告諭)		고창군 부안면 난산시장 민가	不穩ナル貼紙ニ關ス ル件 (1919.5.23.)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https://c11.kr/bo6c> (검색일 2020.11.01.)

순번	발신일자	수신일자	기록건명	관련 지역 및 사건	
				유형	내용
14	1919.4.9.	1919.4.11.	騷擾ニ關スル件		4월 4일 익산·남원·김제시위
15	1919.4.16.	1919.4.18.	騷擾事件ニ關スル件		4월 11일 순창 격문발견
16	1919.4.18.	1919.4.19.	[電報]	탄압	4월 17일 도내
17		1919.4.22.	騷擾ニ關スル件	운동	4월 12일 진안·부안 시위 3건
18	1919.4.26.	1919.4.28.	獨立運動ニ關スル件		4월 6일~18일 임실·익산·부안시위
19	1919.4.30.	1919.5.2.	騷擾ニ關スル民心狀況ノ件		3월 9일, 4월 5~6일 익산 여산·황화면 시위
20	1919.5.1.	-	騷擾ニ關スル民心狀況等ノ件	동향	4월 고창군 민심의 경향보고
21			騷擾ニ關スル民心等ノ狀況ノ件		4월 무주군 민심의 경향보고
22			騷擾ニ關スル民心其他ノ件		4월 금산군 민심의 경향보고
23		1919.5.12.	騷擾ニ關スル民心ノ狀況等ノ件		5월 김제군 민심의 경향보고
24	1919.5.3.	1919.5.5.	不穩貼紙發見ノ件	운동	4월 25일 순창 격문매포
25	1919.5.6.	1919.5.8.	騷擾ニ關スル民心傾向等ニ關スル件	동향	4월 3일 진안군 민심의 경향 보고
26		面職員懲戒處分ニ關スル件	운동	4월 3일 남원시위	
27	1919.5.9.	不穩文書配付者檢舉ニ關スル件		4월 5일 임실 불온문서 발송 사건	
28	1919.5.19.	1919.5.22.		不穩貼紙發見ノ件	5월 11일 순창 격문매포
29	1919.5.23.	1919.5.26.		不穩ナル貼紙ニ關スル件	5월 14일 고창 난산시장 격문
30	1919.5.27.	1919.5.29.	自省會ノ活動ニ關スル件	탄압	5월 14일 도내 자성회 조직
31	1919.5.31.	1919.6.3.	舊韓國旗樹立發見ノ件	운동	5월 26일 고창 태극기 발견
32	1919.6.6.	1919.6.9.	騷擾ニ關スル民情等ノ件	동향	군산·전주·익산·옥구군 지방소요에 대한 감상 보고
33	1919.6.23.	1919.6.26.	地方民情ニ關スル件	탄압	6월 초·중순 군산·정읍·고창·부안·김제·익산 ·옥구군 순시 후 상황보고
34	1919.9.18.	1919.9.20.	內訓發布ノ件報告		9월 13일 전라북도 내훈 제3호 발포
35	1919.9.19.	1919.10.16.	地方民情ニ關スル件	동향	10월 총독경질과 경찰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 조선인의 감상 보고

독립만세를 부르짖을 것을 널리 알림  
呼獨立萬歲注意廣告



슬프도다! 경술년 합방 이후 항상 북받치는 마음을 품고 곳곳에서 통곡을 하였으나 저 도적들의 모질고 억센 기세를 감당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10여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 하늘께서 살피주시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좋은 희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오랜 가뭄에 비를 만난 것과도 같고 아이가 어머니를 본 것과도 같다. 사람이라면 독립 만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은 누구를 없겠는가? 저 도적들이 지금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으니 이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찌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달 14일에 산꼭대기에 모여서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면서 태평한 세상이 올 것을 축원하고 다시는 저 흉악한 놈들이 다시는 세상에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자. 이를 간절하게 널리 알린다.

기미 4월 12일

면사무소에서 제멋대로 이 광고를 붙어두거나 떼는 것을 하지 말라.

그림 2. 1919년 5월 11일 순창군에 배포된 격문<sup>29)</sup>

(2) 수형기록카드

수형기록카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를 지칭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체에 의하면 ‘일제 경찰에 검거·수배되거나 감시받던 인물에 대해 일제 경찰이 작성한 신상 카드’를 의미하며, 생산기관은 1980년대 후반 치안본부(현재의 경찰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총독부 경무국이나 고등경찰과와 형사과를 모두 갖춘 경기도 경찰부에서 일괄 작성·관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30)</sup>

그러나 현재 이 기록물의 명칭과 생산기관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즉,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체에 따라 이 기록물의 명칭을 일제 경찰의 ‘주요 인물 감시’에만 국한한다면 이 기록물이 지니는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8년 등록문화재 제730호로 지정되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문화재로서 명칭을 통해 직관적으로 기록물

29)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https://c11.kr/buvy> (검색일 2020.11.01.)

30) 이애숙, 2014,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해제』국사편찬위원회.

의 성격이 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제가 ‘감시·수배용’으로 활용한 자료라는 의미로만 한정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sup>31)</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전북지역 3·1운동 관련 인물카드 현황에 근거하여 수형기록카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수형기록카드는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된 사람들의 수감 상황과 일부 수배자 및 요시찰인(要視察人)에 대하여 가로 15cm×세로 10cm 크기의 낱장 앞면과 뒷면 모두에 상반신 또는 전신사진과 신상정보 및 수형사항을 기록하였다. 수형사항에 대해서는 미결(未決)과 기결(既決)인 경우로 구분되어 각 항목별로 기록된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데, 미결인 경우에는 형량이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죄명만 기재하고, 이하 형명형기·언도관서·언도연월일 등 세부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개인 신상정보도 대부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결인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다.<sup>32)</sup>

또한 수형기록카드는 시기에 따라 기재 항목이 가감되면서 양식이 변화되었다. 첫째, 1919년과 1920년대 초기에 주로 사용된 A형은 총 기재 항목이 19가지였으며, 이 중 죄명·형명형기·언도연월일·형의 시작·언도재판소·집행감옥·출소연월일까지 7가지 항목은 수형사실(受刑事實)로 분류되어 있다. 둘째, 1923년부터 1931년까지 사용된 B형은 A형에 비해 10여 개의 기재 항목이 추가되면서 A형의 항목이 인적사항과 수형사항으로만 구분한 것과는 달리 인적사항, 인치(引致)사항, 처분결과, 비고의 4가지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진 촬영 일자와 입소연월일·출소연월일에 ‘대정(大正)’ 연호가 인쇄된 것과 ‘소화(昭和)’ 연호가 인쇄된 것 두 종류가 있다. 셋째, 1928년부터 사용되어 1931년 무렵까지 사용된 C형은 B형에서 실무상 기재하기 어려웠던 일부 항목이 조정되어 종전의 29가지에서 22가지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대신 범죄 수법별 원지번호와 범죄수법(手口, てぐち)·배회지(徘徊地)·특징 등이 항목이 추가되어 수감자의 사후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1930년을 전후하여 해방 직전까지 사용된 D형은 기존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바꾼 양식이다. 기재 항목은 총 25가지이며, 범죄 수법의 개요(常用手口概要) 항목이 추가되어 기록 대상자의 주요 활동 내역과 사상적 특징, 관련 인물 등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분되는 카드 양식의 변화는 수감 인원의 증가와 일제의 사상범 대응 양상과 식민 행정의 기

31) 박경목, 2018, 『일제강점기 수형기록카드 현황과 명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13~233쪽 참조.

32) 박경목, 앞의 논문, 203~204쪽

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이러한 수형기록카드 중 전북지역 3·1운동 관련자에 대한 카드는 아래의 <표 4>와 같이 총 10건(10명)이 확인되며, 이들은 모두 기결수로서 전북지역 3·1운동에 참여한 이력으로 일제가 분류해 놓은 사상범죄 중 ‘보안법’ 위반에 따라 수형하였다. 이에 사용된 카드 양식은 10건 중 9건은 모두 1919년과 1920년대 초기에 주로 사용되었던 A형이며, 1건은 1919년 3월 19일 고창군 고창면 장날 만세시위 계획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오동균의 카드로서 A형이 아닌 D형 양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D형 양식으로 작성된 카드에 1919년부터 1930년 이전까지의 시기에 수감된 사실이 있는 인물에 대해 소급하여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카드의 생산시점이 수감자의 피체 및 수감 직후 뿐 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된 사례도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형기록카드는 비록 일제에 의해 작성된 소위 ‘사상범’ 기록이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sup>34)</sup> 특히,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한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에 있어 시각적인 면에서 여타 기록물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표 4. 전북지역 3·1운동 관련자의 수형기록카드 현황<sup>35)</sup>

순번	카드등록번호	성명	관련사건	판결사항	공훈사항
1	SJ0000003917	김해근	4월 3일 남원군 덕과면·사매면 시위 및 4일 남원 읍내 시장 시위	1919.5.9. 1심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건국훈장 애족장 (1990)
2	SJ0000004563	박준수	3월 22일 장수군 반암면 노단리 시장 시위	1919.4.24. 1심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1919.5.17. 2심 대구복심법원	
3	SJ0000005417	오동균	3월 19일 고창군 고창면 장날 만세시위 계획	1919.5.22. 2심 대구복심법원 1919.7.5. 3심 고등법원	

33) 박경목, 위의 논문, 207~212쪽 참조.

34) 박경목, 위의 논문, 235쪽

35) 오동균·이용욱·전창여에 대한 1심 판결문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이용선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훈사실이 없는 관계로 카드에 기록된 본적을 토대로 관련사건을 추정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c11.kr/bwy1> (검색일 2020.11.01.)

순번	카드등록번호	성명	관련사건	판결사항	공훈사항
4	SJ0000005602	유선태	3월 2일 전주군 일대 독립선언서 배포	1919.4.4. 1심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4.24. 2심 대구복심법원 1919.5.22. 3심 고등법원	건국훈장 애족장 (2006)
5	SJ0000005662	유창근	4월 3일 남원군 덕과면·사매면 시위 및 4일 남원 읍내 시장 시위	1919.05.09. 1심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건국훈장 애족장 (1990)
6	SJ0000006209	이성기			
7	SJ0000006350	이용선	4월 3일 남원군 덕과면·사매면 시위	-	-
8	SJ0000006354	이용옥	3월 15일 고창군 무장읍 장날 시위	1919.5.21. 1심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건국훈장 애족장 (1990)
9	SJ0000007060	전일봉	4월 1일 무주군 적상면 무주 읍내 장날 시위	1919.4.11. 1심 광주지방법원 금산지청	대통령 표창 (1996)
10	SJ0000007080	전참여	4월 4일 익산군 익산면 이리시장 시위	1919.5.22. 2심 대구복심법원	대통령 표창 (1992)



그림 3. 수형기록카드의 사례(오동균의 카드)<sup>36)</sup>

### (3) 판결문

판결문은 일제가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전반에 대하여 보안법과 치안 유지법의 위반을 명목으로 형사 재판 절차에 따라 형(刑)을 확정된 사실을 기록한 문서이자 기록물이다. 일제강점기 재판기관은 지방·복심·고등법원의 3계급으로 구분되어 제1심은 지방법원, 제2심은 복심법원, 제3심은 고등법원이 관장하게 하였다.<sup>37)</sup> 이에 따라 일제에 의해 피고인이 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3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c11.kr/bxym> (검색일 2020,11,01.)



된 독립운동가는 각자가 언도(言渡, 선고)받은 형량에 따라서 공소(控訴, 항소) 또는 상고(上告)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식민 통치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하였다.

특히, 확정 판결일은 거의 대부분이 실제 판결일의 다음날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판결 후 1일 내외에 공소 포기 또는 제기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궤석재판일 경우에는 판결을 송달받거나 또는 판결 집행으로 형이 언도되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내에 고장(告狀)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판결문은 각 심급의 재판소 소속의 서기들이 판결문을 쓰고 재판관이 자신의 성명을 기록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판결문 중에는 사본을 작성한 일자와 서기의 성명이 기재된 것도 있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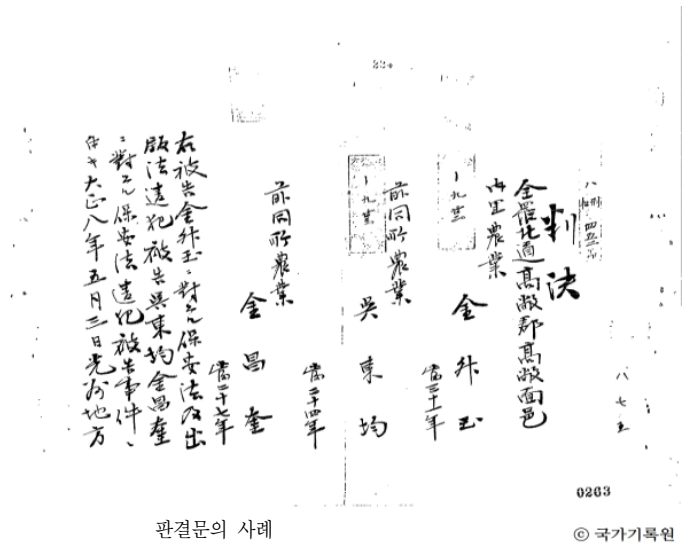


그림 4. 판결문 양식의 사례 : 김승옥 등 3명 판결문<sup>39)</sup>  
(1919.5.22. 2심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의 내용은 판결(判決)·주문(主文)·이유(理由)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37)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편, 『근대 사법 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7 참조.  
38)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편, 『독립운동관련판결문 자료집 - 3·1운동(1)』,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2014, 98쪽  
39)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판결문 <https://c11.kr/bwyc> (검색일 2020.11.01.)

있다. 판결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및 재판 관여 검사를 기록하고, 주문은 피고인의 형량과 압수품 처리를, 이유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활동과 범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기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결 일자와 재판소 소속 및 판사와 서기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판결문에서 전북지역 3·1운동 관련자에 대한 판결문의 현황은 예심(豫審)<sup>40</sup>에서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총 154건이 확인되는데, 이들 판결문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3심을 제외하고, 1심은 광주지방법원 소속 전주·군산·남원·정읍·금산지청, 2심은 대구복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표 5. 전북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의 현황

심급	예심	1심	2심	3심
판결건수	2건	78건	54건	29건
보존건수		70건	53건	
피고인원수	2명	281명	167명	88명

이와 같은 판결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sup>41)</sup> 첫째, 주소·직업·성명(이명)·연령(생년월일) 등의 인적 사항과 이를 토대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직업과 계층 및 연령층을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19년 3월 19일 고창군 고창면 장날 만세시위 계획을 주도한 김승옥은 당시 나이 31세로서 고창면사무소에서 면서기로 재직하던 인물이었다.

둘째, 일제가 독립운동가에게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여 탄압하고, 그에 따른 형량은 어느 정도 부과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고창군 고창면 장날 만세시위 계획을 주도한 김승옥은 오동균, 김창규와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각각 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6월~10월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김승옥에 대해서는 출판법 위반을 추가하여 오동균, 김창규에 부과된 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 6월을 부과하였다.

셋째, 판결문의 핵심인 ‘이유’를 통하여 3·1운동을 비롯한 다방면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김승옥 등 3명

40) 예심(豫審)은 검사나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한 제3자인 판사가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심리하여 범죄 성립의 확신을 얻은 경우에만 공판을 시작하도록 한 제도이나,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위해 변용하였다. 즉 예심 판사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기관이 예심 판상 준하는 강제 처분권을 갖게 하여 예심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편, 『근대사법 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7, 129쪽

41)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편, 앞의 책, 99~100쪽 참조.

판결문에 따르면 김승옥은 1919년 3월 14일 아무개로부터 조선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창가라는 인쇄물 각 1장씩을 입수해 3월 17일에 자신이 근무하던 고창면사무소에서 등사관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서 7~8장, 조선독립창가 약 50장을 인쇄하였다. 그리고 익일인 18일에 인쇄물을 오동균에게 교부하면서 배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오동균은 김승옥으로부터 인쇄물을 받은 후 김창규와 함께 고창읍내의 김동옥의 집에서 이 집에 있던 김응권 등 10명에게 인쇄물을 배포하고 3월 19일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권유하였다. 이와 같이 판결문에 기록된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 사실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다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3·1운동에 참여한 것만으로 일제로부터 형사 재판을 받은 이들의 판결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비록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 행정에 따라 한국독립운동에 대하여 단죄한 결과로써 생산된 기록물이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이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시위를 계획하고 전개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아카이브의 온라인 전시

### (1) 온라인 전시 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본 연구에서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활용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아카이브 전시’의 개념은 디지털 아카이빙(Digital Archiving,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디지털 객체를 장기간 관리하여 이후의 이용을 보장하는 활동)으로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 디지털 아카이빙의 결과물로서 디지털의 형태로 서비스 중인 보존 기록관 또는 보존 기록물)에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기록물(Archives)을 전북지역 3·1운동을 주제(Thema)로 하여 독립된 전시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아카이브 전시라 함은 기록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기록의 가치를 전하고, 기록물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활동을 말하며, 디지털 아카이브의 대표적인 사례라 함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기록원<sup>42)</sup>에서 자체 서비스 중인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록정보콘텐츠를 들

42)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사 연구의 기반이 되는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사 자료의 디지털화와 웹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사데

수 있다. 더욱이 지난해(2019), 국사편찬위원회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 관련 기록물을 한데 모아 상세한 시위정보와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였는데, 이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온라인(On-line) 전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전시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전시유형이다. 온라인은 컴퓨터의 단말기가 중앙 처리 장치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전송하고, 중앙 처리 장치의 직접적인 제어를 받는 상태를 말하며, 이른바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가상공간을 지칭한다. 이에 컴퓨터나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하여 접속해야 볼 수 있으며, 이용자는 곧 가상의 전시화면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관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 전시는 실재하는 오프라인 전시관을 가상공간에서도 보여주는 전시와 실재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만 디지털 형식으로 보여주는 전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전시를 홍보하여 관람객을 유도하는 것에, 후자는 가상공간 안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능한 다양한 효과로 전시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sup>43)</sup>

이러한 온라인 전시를 실제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웹(web)상에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구현하는 웹페이지 전시(웹 전시)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전시가 있다. 웹 전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 구현된 사이트(site)에 접속하는 것으로서 하이퍼텍스트란 텍스트·이미지·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간접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링크(link, 인터넷상에서 문자열이나 아이콘을 다른 웹페이지나 파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가 가능하다. 링크는 직접 디지털 자료를 제작 또는 구입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의 존재를 이어줄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지닌다. 따라서 웹 전시는 하이퍼텍스트로 직접 구성된 전시정보에 간접정보 링크가 한데로 모이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매체로 정의된다.

가상현실 전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시를 실재처럼 느낄 수 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연구자들의 자료 이용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록물관리의 총괄·조정과 공공기록물의 영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자체 소장중인 일제강점기의 주요 기록물에 대하여 '독립운동관련판결문', '조선총독부기록물',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 등의 컬렉션별로 디지털화된 기록정보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43) 김희경, 「가상 전시의 설계와 구현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7), 2006, 51~72쪽.

게 만드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말하는데, 파노라마 VR(파노라마로 찍은 전시사진을 웹페이지에서 확대·축소 및 움직이면서 볼 수 있게 함)과 Object VR(대상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360도로 회전하면서 감상이 가능하게 함), 3D VR(공간과 객체정보를 삼차원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입체감을 느끼게 함)로 분류된다. 가상현실 전시는 온라인에서 전시를 구현하는데 있어 실재감과 정보전달의 용이성 면에서 웹페이지 전시보다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에 따른 제약이 있다. 이에 실제로 구현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특정한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세 가지 방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sup>44)</sup>

이같이 온라인 전시는 물리적인 전시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이 낮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전시에 있어서도 유용한 활용 방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의 아카이브(기록관)에서 온라인 전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듯이, 웹페이지를 통한 아카이브 전시 기획은 시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아카이브는 보존 가치를 띠고 있으면서 유일성(唯一性)이라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전시에서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복제본(寫本)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모든 전시물을 대체하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과 전시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카이브의 온라인 전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손상 우려의 가능성이 높은 자료의 영구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sup>45)</sup>

더욱이 공공기관 아카이브(기록관)의 웹페이지는 검색과 열람이라는 활용목적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주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아카이브의 맥락을 반영한 주제별 콘텐츠를 제작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온라인 전시는 정보 연계 확장의 차원에서 검색·열람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특히, 아카이브 전시에 있어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전시를 구축하여 서비스 한다는 것은 먼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필요성과 수요를 유발한다. 이에 정부의 정책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보존 및 활용 등 다

44) 최석현·박현숙·김명훈·전태일,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활용효과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2013, 11~12쪽.

45) 최석현·박현숙·김명훈·전태일, 앞의 논문, 12쪽.

46) 최석현,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시 필요성 고찰」,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13, 68쪽.

양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활용될 수 있는 아카이브 오브제는 실시간으로 계속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아카이브(기록관)의 디지털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검색·열람과 상호보완을 이루면서 활용의 수요자인 아카이브 이용자의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토리텔링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적용된 전시를 통해 아카이브(기록물)를 활용한다는 것은 더 이상 수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콘텐츠의 이용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게 하며 이용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일이다. 이는 이용자의 흥미와 만족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관홍보 및 문화관광자원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아카이브의 자연스러운 사명인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아카이브(기록관)에 부여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된 아카이브(기록물)를 전시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과 만나 기존 아카이브의 존재이유인 보존 가치를 뛰어넘는 다양한 목적에의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자 새로운 기록정보콘텐츠를 창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아카이브 전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로 서비스하는 것은 전시 자체로의 활용성은 물론 아카이브(기록물)가 가진 고유의 기록정보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활용가능성을 가진 제2의 콘텐츠로 재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sup>47)</sup>

## (2) 웹 전시도구로서의 OMEKA의 특징

앞서 살펴본 온라인 전시의 유형 중 하나인 웹 전시의 실제 구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전북지역 3·1운동을 기념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를 웹 전시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기록관리 분야의 개방형(Open source) 소프트웨어 중에서 전시 서비스 기능에 적합한 OMEKA를 전시 콘텐츠 개발 도구로서 선정하였다.

OMEKA는 앤드류 W.멜론 재단,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 알프레드 P.슬론 재단, 사무엘 H. 크래스 재단 등 미 연방 기구와 사립 재단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리눅스(Linux)기반의 웹 콘텐츠 제작 도구로서 문화유산 컬렉션을 웹에서 다양한 내러티브의 구조로 보여주고 전시

47) 최석현, 앞의 논문, 70~71쪽.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OMEKA의 특징은 이용하기 쉽고, 더블린 코어(Dublin Core) 기반의 정보 관리를 통해 컬렉션 관리와 디지털 컬렉션 관리, 웹 콘텐츠 관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데이터 교환이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Migration)<sup>48)</sup>, 콘텐츠 재사용 기능이 제공되어 이용자 참여와 상호작용을 권장하는 등 웹 2.0 기술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OMEKA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초기 아카이브 구축을 쉽게 진행할 수 있어,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은 지역단위의 소규모 아카이브 구축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활동 주체와 상호작용하고, 이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추가적인 모듈인 플러그인(plugin)을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풍부한 전시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기록을 해석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구성 및 제안할 수 있어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을 하나의 내러티브가 아닌 다양한 내러티브로 구성하여 전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sup>49)</sup>

이에 OMEKA는 별도의 설치 없이도 웹 퍼블리싱 플랫폼인 OMEKA.net에 가입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다양한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접속해 기록 전시에 이용할 수 있다. OMEKA.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계정을 개설하면 용량, site-plugin, 테마 등 콘텐츠 제공수준에 따라 유료화하여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무료 등급으로도 500MB(1 site, 10 plugins, 4 themes)를 제공한다. 가입 후에는 Dashboard에서 서비스와 관리가 가능한데 실제적인 관리는 Manage Site에서 할 수 있다. Manage Site에서는 OMEKA를 통해 보유기록을 관리하고 전시 서비스 연출을 기획할 수 있는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템(Items), 컬렉션(Collections), 태그(Tags), 플러그인(Plugins), 화면관리, 전시(Exhibits)를 통제할 수 있다. 특히, 플러그인 관리 중 유용한 플러그인으로는 CSV Import 기능으로 다량의 기록목록을 일괄 탑재할 수 있으며, Exhibit Builder 기능은 전시를 개설 할 때 전시의 기획과 주제(narrative)에 따라 페이지(Page)를 구성하고 아이템을 블록(Block)으로 구성하여 실제 웹 전시로 연출될 수 있게 한다. OMEKA는 단일 아이템이 이를 기술한 메타데이터와 검색

48) 한 세대의 컴퓨터 기술로부터 다음 세대로, 또는 한 가지 조합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정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정기적으로 디지털 자료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마이그레이션은 현재로서는 가장 선호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보존전략이지만 대용량 자동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이 아직 진행 중이다.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사전』, 2008, 94쪽.

49) 현문수·전보배·이동현,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 - 부산 영도 지역 조선(造船) 노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42, 2014, 259-260쪽.

등에 필요한 주제어를 표현한 태그로 구성된다. 이처럼 OMEKA는 특별히 전문적 기술이나 많은 비용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록 전시기능으로 특화되어 있다.<sup>50)</sup>

#### 4.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 방안

##### 1) 사전 검토와 전시 기획

###### (1) 사전 검토

OMEKA를 활용한 기록물 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OMEKA 시스템의 속성과 대상 기록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 OMEKA에서의 기록물관리는 곧바로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관리’의 전문성과 ‘전시’의 대중성은 자칫 충돌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OMEKA 시스템에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것은 관리자 편의성과 계층구조의 단순함 때문이다. 물론 이 단순한 구조가 복잡한 계층구조를 요구하는 기록군을 적절하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OMEKA의 ‘아이템-컬렉션’의 2단계 구조는 기록에 접근하는 데 번거롭지 않아서 기록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이용자가 별다른 부담 없이 기록물 전시를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OMEKA를 통해 기록물을 관리하고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시각적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전시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51)</sup>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록물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제강점기에 생산되어 보존 기록 가치를 지닌 행정기록물인 도장관보고철과 수형기록카드 및 판결문이다. 이들 기록물은 각 소장기관(국사편찬위원회·국가기록원)마다 자체적으로 디지털화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누구나 온라인에서 열람과 활용이 가능한 매체로 되어 있다.

특히, 각 소장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록정보콘텐츠에서 이미 서비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온라인 전시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전북지역

50)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2, 2014, 150쪽.

51)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앞의 논문, 159쪽.



3·1운동을 기념하는 데 있어 관련 기록물 활용의 유용성과 활용 가치를 대중적인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데에 있다. 따라서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한 행정기록물만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전시를 구현한다는 것은 전북도민을 비롯한 일반 대중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한 기념과 교육 및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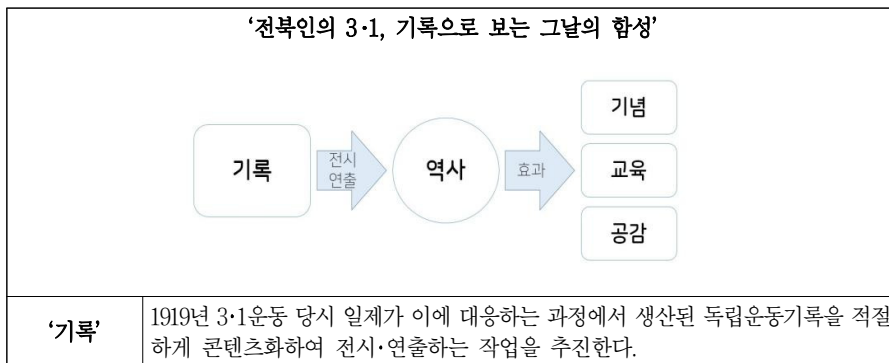
(2) 전시 기획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 설계를 위해 선행할 일은 기념 대상과 그에 따른 전시주제를 명확히 하고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개념 도출이 필요하며, 전시주제 및 전시 대상 기록물에 대한 제반 지식과 스토리(Story)의 구성 역시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컬렉션 구성 단계와 정리·기술 단계의 정의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sup>52)</sup>

이에 앞서 살펴본 전북지역 3·1운동의 기념과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현황을 토대로 전북도민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 전시’를 구현하고자 다음의 <표 6>과 같은 전시 개념을 상정하고 도식화하였다.

한편 전시는 기본적으로 기획·조사·디자인·전시·평가·홍보·경영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작업이다. 이에 어떠한 상황이던 전시는 다루는 주제나 대상 그리고 전시물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목표설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 때 문서화는 <표 7>과 같이 추진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명확해진다.

표 6.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 전시 개념 구조도<sup>53)</sup>



52)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위의 논문, 161쪽.

‘역사’	이 과정에서 3·1운동 당시 전북지역의 사건, 인물, 공간 등의 시대상을 현재의 이용자 앞에 호출하는 ‘역사화’ 작업이 진행된다.
‘기념·교육·공감’	이러한 인지과정 및 행위에서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한 기념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효과로서 사회교육 및 과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효과가 증폭되면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 등으로 전시콘텐츠를 지속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 이번 전시 제목을 ‘전북인의 3·1, 기록으로 보는 그 날의 함성’으로 정하고 전시 내용의 성격을 규정한다.	

표 7.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 전시 추진 계획서(예시)<sup>54)</sup>

<p><b>‘전북인의 3·1, 기록으로 보는 그날의 함성’</b></p> <p>OMEKA를 활용한 웹페이지 기반 온라인 전시 추진계획(안)</p> <p><input type="checkbox"/> 전시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운동 100주년을 기하여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북지역 3·1운동의 역사를 기록을 통해 조명.</li> <li>- 전북지역 3·1운동을 기념하는 데 있어 독립운동기록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록물의 교육·문화적인 역할과 가치를 홍보.</li> </ul> <p><input type="checkbox"/> 전시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을 통해 전북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을 거시적으로 재현</li> <li>- 웹페이지 전시의 형태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량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연출</li> <li>- 연출 기획방향 변경 및 오류수정에 대해 탄력적 대응</li> </ul> <p><input type="checkbox"/> 전시추진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제목: (가제) ‘전북인의 3·1, 기록으로 보는 그날의 함성’</li> <li>○ 추진기간: 연중</li> <li>○ 전시소재: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도장관보고철·수형기록카드·판결문) 199건</li> <li>○ 구현방식: 온라인(웹페이지)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MEKA를 활용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대중적인 기록물의 웹페이지 전시 구현</li> <li>- 웹 전시 사이트 주소: <a href="https://jeonbuksamil.omeka.net">https://jeonbuksamil.omeka.net</a></li> </ul> </li> <li>○ 관람대상: PC를 통해 웹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전북도민을 비롯한 일반 시민</li> <li>○ 전시방법: 199개의 Item, 2개의 Collection, 3개의 Exhibit로 구조화</li> <li>○ 전시내용: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전시를 통해 전북지역 3·1운동 역사의 현장을 재현</li> <li>○ 소요비용: 비예산</li> </ul> <p>※ OMEKA.net의 무료등급(500MB, 1 site, 10 plugins, 4 themes) 활용</p>	
---	--

53)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위의 논문, 162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54)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위의 논문, 163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 2) 전시 컬렉션의 구조화와 기록 등록관리

### (1) 전시 컬렉션의 구조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는 위의 전시 개념 구조도에 따라 199건의 기록을 이용하여 199개의 아이템(Items), 2개의 컬렉션(Collection)으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3가지의 소주제로 선정하여 별도의 전시(Exhibit)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전시주제는 그간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

표 8. '전북인의 3·1, 기록으로 보는 그 날의 함성' 전시 기록물 현황

기록 분류	
컬렉션(Collection)	아이템(Items)
1. 도장관보고철, 1919년의 전북	1919년 3월 3일~1919년 9월 19일 사이에 전북지역의 시위상황과 민정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장관이 총독부에 발신·보고한 기록 35건
2. 판결문, 1919년의 전북인 (1)	1919년 4월~1920년 10월 사이에 전북지역 3·1운동에 참여하여 일제로부터 재판받은 인물들의 판결문 154건
3. 수형기록카드, 1919년의 전북인 (2)	1919년 4월~5월 사이에 전북지역 3·1운동에 참여하여 판결받아 수형한 인물의 수형기록카드 10건
전시(Exhibit)	
전시주제	설명
1. 천도교와 기독교, 독립선언서 배포와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독립선언서 배포를 주도하여 전북지역 3·1운동의 서막을 올린 사람들은 천도교인이었다. 이에 호응하여 기독교인 또한 도내 곳곳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는데, 이들 종교인은 각자의 조직체제와 학교를 기반으로 도내 3·1운동의 확산을 이끌었다.
2. 면민과 학생, 만세시위의 선봉에 서다	전북지역 3·1운동의 또 다른 주역은 도내 각 군의 면사무소 근처나 마을, 학교, 그리고 시장에서 만세시위의 선봉에 나선 면사무소 직원과 면민, 그리고 학생이었다. 이들은 저마다 자발적으로 한데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전북지역 3·1운동의 전위대 역할을 자임하였다.
3. 격문, 독립을 향한 전북인의 의지를 보여주다	3·1운동 당시 전국적인 만세시위의 열기를 보다 뜨겁게 달구는 역할을 했던 격문은 일제에 대한 조선 민중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다. 이에 전북인 또한 격문의 살포와 부착을 통해 '독립'을 향한 굳센 의지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위의 현황에서 보듯이 컬렉션에는 아이템 단위의 기록물이 있으며, 특정 주제의 기획전시 영역인 Exhibit에는 시스템 내부에 등록된 아이템을 의도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편 '전북인의 3·1, 기록으로 보는 그날의 함

성' 전시의 주요 기록군인 컬렉션의 기술(記述, Description)<sup>55)</sup>은 전시 서비스의 대중성을 고려하여 전시 안내문의 형태로 작성하고자 하였다.

표 9.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컬렉션(Collection)에 대한 기술 요지

제목	기술 내용
1. 도장관보고철, 1919년의 전북	1919년 3·1운동 당시 일제는 각 도별로 도장관(현재 도지사 역할)이 해당 지역의 만세 시위 상황에 대해 총독 또는 정무총감에게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전라북도장관 또한 전북지역의 민심동향과 만세시위 상황에 대해 총독부에 전보하였다. 이러한 도장관의 보고는 1919년 3월 3일을 시작으로 9월 19일까지 이어졌으며, 이 중에는 당시 압수된 전북인의 격문이 4건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당시 대내외적으로 들끓는 만세시위의 열기에 대한 전북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2. 판결문, 1919년의 전북인 (1)	1919년 전국적인 만세시위의 열기에 당황한 일제는 만세 시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위를 계획하거나, 또는 시위를 함께하자고 권유한 이들에게도 '보안법' 위반을 명목으로 사법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전북인은 만세 시위의 정당성과 조선독립의 당위성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나, 각기 판결에 따라 옥고를 치렀다. 따라서 판결문과 수형기록카드는 이러한 행형의 과정에서 생산된 행형기록으로서 당시 전북지역 3·1운동을 이끈 주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3. 수형기록카드, 1919년의 전북인 (2)	

## (2) 기록 등록관리

실제 OMEKA에서의 기록 등록 및 수정 등 관리는 상술한 바와 같이 Dashboard 내 Manage Site 화면에서 수행한다. 아이템의 등록 및 수정 관리는 '아이템' 항목에서 각 건별로 추가·편집 및 삭제를 할 수 있으며, 컬렉션은 '컬렉션' 항목에서 추가할 수 있다. '아이템 추가'에서 기록건은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로 관리한다. 아울러 아이템 유형, 컬렉션, 파일 업로드, 태그 등을 통제한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격문 배포 사진 중 문명근 판결문을 예시로 정리하였다.

이 중 아이템 유형 메타데이터에서는 문서, 동영상, 구술사, 웹사이트 등 사

55) 기록을 위한 검색 도구나 기타 접근 도구를 생산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물을 말하며, 기술의 1차적 목적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기록군이나 컬렉션의 구성 기록을 보여줌으로써 무결성(無缺性, Integrity)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을 통해 기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기록을 이용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기술의 본질적인 목적은 기록의 내용, 맥락, 구조를 조직하고, 식별하여, 설명함으로써 이용자가 적합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63~64쪽.

전에 아이템 유형에서 매체별 유형화한 값을 선택한다. 컬렉션에서는 컬렉션 단계에서 유형화한 목록을 선택하여 해당 아이템을 분류하는데, 기록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컬렉션-아이템의 계층구조를 확정하고 컬렉션 단계에서 색인 작업을 진행하면 아이템 정리가 수월하다. 파일에서는 해당 기록물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편집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태그 단계에서의 작업을 통해 등록된 기록을 특정 주제별로 키워드를 통제하여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아이템 추가 단계에서 작업을 마친 후 아이템 보기에서 표출된 아이템 목록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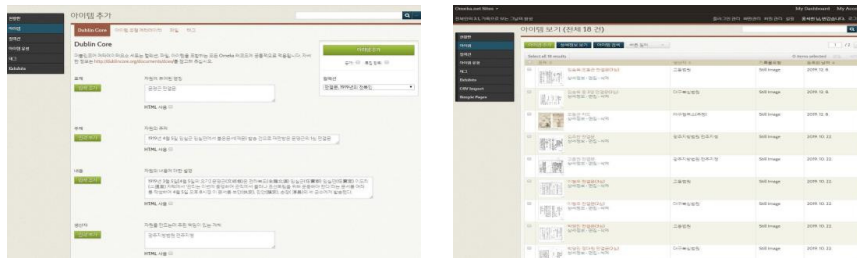


그림 5. OMEKA Manage Site)아이템에서의 아이템 추가 화면(좌측)과  
아이템 보기 목록 화면(우측)

### 3) 전북지역 3·1운동 온라인 전시 연출

#### (1) 전시주제의 추가 및 관리

OMEKA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컬렉션-아이템의 계층구조와 별도로 아이템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Exhibits 파트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여기에서 독자적인 기록전시 연출을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인의 3·1, 기록으로 보는 그날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설계한 전시 기획에 따라 3개의 전시 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전북 3·1운동 온라인 전시 구축의 실례로서 전시주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 6>과 같이 Exhibits 항목에서 ‘Add an Exhibit’를 통해서 한다.

전시주제를 추가하게 되면 우선 해당 주제의 Edit Exhibit에서 Exhibit Metadata와 Exhibit Pages를 작성할 수 있고, Pages에서 Exhibit의 하위 레벨인 Page를 추가·편집·삭제를 할 수 있다. Add page를 통해 Page의 Title을 비롯한 레이아웃(Layout)과 콘텐츠를 구성하는 아이템을 추가하고 나면 이후의 편집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Edit Page 화면에서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앞서 기록 등록에

서 정리한 격문 배포 사건 중 1919년 3월~5월 순창군 격문 배포 사건 기록을 활용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전시용 아이템의 등록은 Content에서 추가할 수 있으며, 레이아웃은 기록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Gallery’를 선택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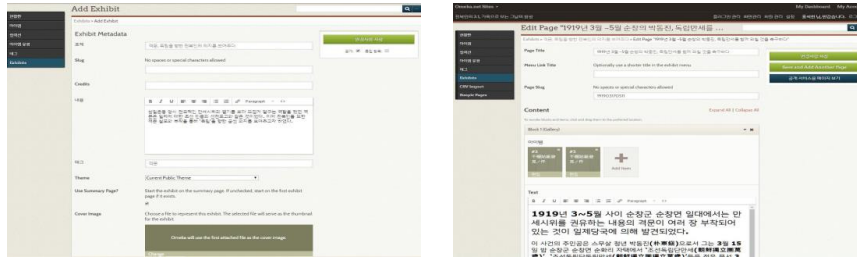


그림 6. OMEKA Manage Site)Exhibits의 Add an Exhibit 화면(좌측)과 Edit Page 화면(우측)

## (2) 전시 연출 관리

본 연구에서 OMEKA의 활용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는 앞서 전시 추진 계획서(예시)를 통해 언급하였지만, 3·1운동 100주년을 기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북지역 3·1운동의 역사를 기록물을 통해 조명하고, 전북지역 3·1운동을 기념하는 데 있어 독립운동 기록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전북지역 3·1운동 기록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록의 교육·문화적인 역할과 중요성을 전북도민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메인 페이지 구성은 아이템 보기, 컬렉션 보기, Browse Exhibits와 함께 3·1운동 시위 장소에 대한 위치 정보를 참고하도록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의 GIS 서비스를 링크 추가하여 네 가지 영역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아이템 보기’ 영역에서는 등록된 모든 아이템 단위의 기록건의 제목, 기술, 이미지의 목록을 제공한다. 목록을 구성하는 제목이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록건의 세부내용이 더블린 코어에 따라 제공한다.

‘컬렉션 보기’ 영역에서는 전시 기획에 따라 구성된 컬렉션의 목록을 제공한다. 컬렉션의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컬렉션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화면으로 전환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컬렉션 소개화면은 더블린 코어와 그 아래 컬렉션에 있는 아이템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Browse Exhibits’ 영역은 전시 기획에 따라 구성된 세 가지의 전시주제를 보여준다. 주제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전시주제에 대한 설명과 해당 주제에 대한 Exhibit Page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보고 싶은 Page를 클릭하면 해당 Page에서 전시되는 기록과 내용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시된 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이미지를 클릭하여 해당 기록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OMEKA View Site)아이템 보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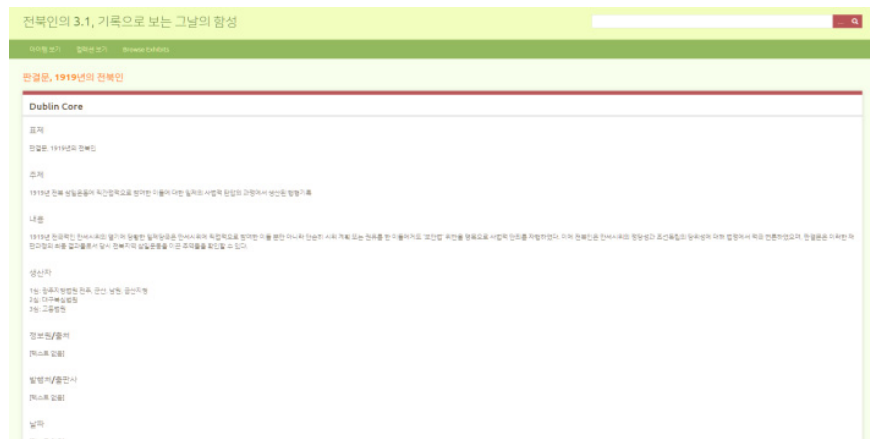


그림 8. OMEKA View Site)컬렉션 보기 화면

이와 같이 OMEKA를 활용한 기록의 온라인 전시는 갤러리(Gallery) 형태의 시각적 전달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계층구조의 단순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층구조는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다량의 기록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에는 기록전시 관람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 관점에서 본다면 기록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관적인 인터페

이므로 기록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OMEKA 웹 전시를 경험하는 이용자들은 웹상에서 펼쳐진 기록콘텐츠들을 컴퓨터 마우스의 클릭(Click)과 롤오버(Rollover), 드래그(Drag), 드롭(Drop) 등의 상호적인(Interactive) 행위를 통해 주체적으로 관람을 할 수가 있다. 이는 실제 공간에서 연출되는 오프라인 전시가 주는 현장감이나 실체감은 충족할 수는 없어도, 많은 양의 전시물을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56)</sup>

특히,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해 그간 단순히 애국주의적인 찬양과 미화된 기억만으로 기념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있는 온라인 전시로써 전북지역 3·1운동과 관련된 기록물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전북지역 3·1운동을 기념하는 데 있어 기록정보의 활용과 공유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hibit-1 '천도교와 기독교, 독립선언서 배포와 만세시위를 주도하다'의 '천도교인, 익산군 각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Page



Exhibit-2 '면민과 학생, 만세시위의 선봉에 서다'의 '고창면의 면서기 김승욱, 청년 오동균·김창규와 함께 장날 시위를 계획하다' Page



56)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위의 논문, 175~176쪽.



Exhibit-3 ‘격문, 독립을 향한 전북인의 의지를 보여주다’의 ‘1919년 3월~5월,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촉구한 순창의 박동진’ Page



그림 9. OMEKA View Site)Browse Exhibits) Page 화면

### 5. 맺음말

본 연구는 그동안 3·1운동에 대한 기념문화가 기억의 정치에 의해 경직되고 획일화된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이면서 교육적이고 다양성 있는 3·1운동 기념문화를 만들어나가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전북지역 3·1운동은 1919년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열기 속에서 천도교계와 기독교계의 조직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하에 일반 군민이 도내 곳곳에서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에 맞서 적극적으로 항거하고자 한 의지를 다양한 형태로 표출한 민족운동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로 인해 전북지역 3·1운동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기념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기념물을 통해 고정된 전북지역 3·1운동 기념의 현황은 과도한 애국주의적인 찬양과 미화가 농후하다는 점과 도민을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유리된 공간에서 사회에 일반화되지 못한 채 대중에게서 잊혀 가는 기념공동체만의 관성적인 재생이 반복되어왔다. 이 같은 기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기념의 일상화 방안으로 접근성이 유리한 인위적 공간을 형성하여 기억을 재생하고,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억과 기념의 장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정의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전시에 활용하고자 한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로는 사건 당시 일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하여 현재까지 전하는 보존 기록 가치를 지

닌 도장관보고철과 수형기록카드 및 판결문이며 이는 전북지역 3·1운동의 시위공간과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인물에 대해 알 수 있는 1차 사료로서 전북지역 3·1운동의 전반적인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온라인 전시는 OMEKA를 통한 웹 전시의 형태로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첫째, 이용자 관점에서 볼 때 기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기록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전북도민을 비롯한 일반 대중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의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로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해 그간 기념물로서 단순히 애국주의적인 찬양과 미화된 기억만으로 기념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있는 온라인을 통해 독립운동 기념의 일상화와 함께 보다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념 문화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의 일부, 즉 일제가 생산한 기록물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북지역 3·1운동 행정기록물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 점과 행정기록물이라는 범주로만 한정된 결과 동시대 다른 생산자가 남긴 기록물과의 상호비교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생산자가 남긴 기록물의 변화상에 대한 고찰을 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기록물을 단순히 갤러리 형태의 전시화면으로만 보여주는 수준에만 그친 결과 이용자의 흥미와 시선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형태로 구현되어 이용자에게 더욱 친화적인 전시콘텐츠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지 못한 한계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북지역 3·1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기념을 비롯한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전북지역 3·1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문화가 아카이브의 활용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존의 방식과 관습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화되고, 일상화되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 2021. 04. 29. / 심사개시일: 2021. 05. 18. / 게재확정일: 2021. 06. 08.

## 참고문헌

- 김유승, 2010,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권 2호, 31-52쪽.
- 김정인, 2009, 「기억의 탄생: 민중 시위 문화의 근대적 기원」, 『역사와현실』 74권, 149-174쪽.
- 김정하, 2009,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1권, 3-40쪽.
- 김진호, 박이준, 박철규 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09, 『국내 3·1운동 II-남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혜진, 2014, 「전라북도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물」,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박결순, 2018, 『기록으로 듣는 100년 전의 함성, 3·1운동』,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박경목, 2018a, 「일제강점기 수형기록카드 현황과 명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집, 201-240쪽.
- \_\_\_\_\_, 2018b, 「독립운동 공간의 기억과 기념」, 『한국근현대사연구』 87권, 71-105쪽.
- 박정현, 2007, 「기록물관리기관의 아웃리치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서은경, 박희진, 2019, 「기록콘텐츠 기반의 아카이브 전시 활성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권 1호, 69-93쪽.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편, 2014, 『독립운동관련판결문 자료집 -3·1운동(1)』,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 이선희, 2009, 「기록의 전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 이은비, 2016, 「대구 근대기록물의 온라인 전시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전진성, 2003, 「기억과 역사: 새로운 역사·문화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사학사학보』, 8권, 101-140쪽.
- 정근식, 2006,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97집, 277-305쪽.
- 조동걸 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07,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조민지, 2014, 「이미지의 시대 기록전시와 사진기록」, 『기록학연구』 39권, 73-100쪽.

- 최석현, 2013,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시의 필요성 고찰-아카이브 전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최석현, 박현숙, 김명훈, 전태일, 2013,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활용효과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권 1호, 7-33쪽.
- 최운진, 최동운, 김형희, 임진희, 2014,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2권, 135-183쪽.
- 황선익, 2018, 『독립운동 기념의 역사적 전개와 독립운동 기념관』, 『한국근현대사연구』 87권, 107-138쪽.
- 최호근, 2003,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집, 159-189쪽.
- \_\_\_\_\_, 2019, 『기념의 미래』, 고려대학교 출판부.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2014,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부산 영도 지역 조선(造船)노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42권, 259-260쪽.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편, 2017, 『근대 사법 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결문,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http://e-gonghun.mpva.go.kr/user/index.do>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 <http://mfis.mpva.go.kr/main.do>
-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home/main/main.do>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main.do>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main.do>

<Abstract>

## **A Study on the Online Exhibition of Administrative Archives on March 1st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Seokcheon Hong\*

In March 1919,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was a modern national movement that inherited and developed the spiri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and was celebrated in the province from liberation in 1945 to today. However, only the reproduction of memories that have not been popularized has been repeated due to excessive patriotic praise and glorification by representing only certain objects.

As a measure to utilize administrative archives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to commemorate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display the administrative archives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First, the records select for the exhibition shall be the minister of province report file, the penal record card and the sentencing produced as a process of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around the March 1 Movement. This is because it has the value of preservation records as the primary source of knowledge of the overall realit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Second, it is propose that the exhibition be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web page exhibition where anyone in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e inhabitants of the Jeonbuk, can access and view sit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as hypertext through the Internet. For this purpose, 'OMEKA', an open source software in the field of record management, was utilized as a tool for planning, organizing and displaying various narratives of the March 1st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Third, on this basis, the exhibition of administrative archives for the March 1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is divided into the stages of advance review and planning, the structure of exhibition collections, the registration management of records, and direct exhibition method to present practical implementation measures.

---

\*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d an online exhibition as a means of utilization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archives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but it failed to cover the overall administrative archives of March 1st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because it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produced by Japanese imperialism. However, through recognition on the records, the scope of understanding of the March 1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can be expanded and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commemoration. In particular, through the use of archive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online platform, there is an expected effect that the culture of celebrating historical events, including the March 1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can be more diversified and become routine, away from conventional methods and customs.

Key Words : March 1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Administrative records for the March 1 Movement in Jeonbuk Province, Service, Online exhibition